

한국선장포럼의 항해 기록

한국선장포럼 사무국



해사 산업계의
염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수 년 동안 발생한 몇몇 대형 해양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필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과 전문성 없이 매도되는 사고 관련 당사자를 보아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다 위라는 접근하기 힘들고 실제 오랜 승선 경력 없이는 잘 알 수 없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는 이슈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여망으로 탄생한 것이 한국선장포럼(KSMF : Korea Ship Masters' Forum)입니다.

한국선장포럼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양사고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선장 출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사(海事) 기술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의견을 표명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해기사협회가
산파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선장포럼의 탄생에는 (사)한국해기사협회가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협회는 해기 기술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우리 해기사의 위상도 제고시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 선장포럼을 발족시켰습니다.

우선 협회는 한국선장포럼을 협회 내 조직의 일원으로 두어 포럼이 독립적인 체제를 갖출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고, 사무국 사무실과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였던 것은 해사 산업계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포럼이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협회가 직접 한국선장포럼에 재정의 일부를 후원하는 것 외에도 유관단체들로 하여금 같이 참여를 유도하여 한국선장포럼이 조기에 재정적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8년 창립하여
8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산업계에서 한국선장포럼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17년 중반부터였고, 사전에 조직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한 후 2018년 5월 16일 발기인 대회와 함께 포럼을 운영할 운영위원과 운영규정을 확정하였습니다. 곧이어 해기사협회 창립 64주년 행사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선장포럼이 2018년 6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창립은 하였으나 실행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활동이 여의치 못하자 선장포럼은 10월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상근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무국이 활동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립된 의사결정
조직과 예산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한국선장포럼이 해기사협회 내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별도의 대표와 부대표를 두고 있고, 3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선장포럼을 이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다년간 해상경험을 갖춘 선장들 중에서 10여종의 다양한 선종으로 분류하고 육상의 여러 해사분야에서 활동을 한 전문가들을 엄선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전문성을 최신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예산도 협회와 분리된 수입과 지출 계정을 마련하고 별도로 감사를 받는 등 협회와는 독립된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로 활동
하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받고있습니다.

한국선장포럼은 하부에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운영위원이나 회원들은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자문이나 연구활동을 하게 됩니다. 검토 주제에 따라서는 소위원회 간 TFT를 구성하거나 필요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장포럼에는 다년간 선장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선장포럼에는 현재 노·사·연 7개 분야 21개 기관과 14개 기술분야에 20명이 자문위원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림 1〉 한국선장포럼 조직도



한국선장포럼의 역할과 포지셔닝은 명확합니다.

해기 지식과 관련해서는 많은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법정교육과 훈련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선체와 같은 하드웨어나 안전 시스템 관련 해기 기술은 선급에서, 다양한 이론적 해기 부문은 해양계 대학교와 여러 학회에서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현장 실무경험 분야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선장포럼은 현장의 선박 안전 운항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장 선박 안전과 운항 기술의 조사 및 연구

현장 중심의 해사 기술 조사
해상 교통 안전 제고를 위한 연구

해사 기술 전문가 자문 제공

대내·외 해사 기술 자문 및 전문적 의견 표명
정부 등 해양 안전 정책 수립 자문과 지원

해사 지식 축적 및 전파

현장 안전교육 지원 및 운항 관련 기술의 플랫폼 구축
해사 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
국내·외 해사 기술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그림 2〉 한국선장포럼 주요 추진 업무

한국선장포럼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단체·기업·개인은 포럼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포럼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장포럼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위원의 전공 및 자문/연구처리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선장포럼 홈페이지(www.shipmaster.or.kr)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해사관련 단체 대부분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선장포럼의 조사, 연구 및 자문 활동은 선장들의 노하우를 산업계에 무상으로 피드백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선장포럼은 해사관련 단체들로부터의 후원금과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들로부터 법인회비를 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하는 개인회원에게는 회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재능기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범 첫 해인 2019년도는 이미 해사분야 주요 기관들 대부분이 후원금을 기탁하였거나 후원을 약속하였습니다. 30개 기관을 목표로 추진하였던 법인회원도 연초에 이미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 재원을 선원노동단체와 선주·관리회사단체, 해사단체와 공익단체가 함께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선장포럼의 공정성·전문성·독립성을 인정하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2019년은 포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해입니다.


한국선장포럼은 해사 산업계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출범한 단체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많습니다. 출범 초기년도에 선장포럼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사분야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요청받을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산업계의 니즈에 부응하여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같은 기획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시로 해운기업들의 육·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장의 경험을 전수하는 교육기회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적 해기 기술의 수집, 정리 및 체계적인 공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행하여 일선 선박에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선장포럼이 영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체제의 정비, 튼튼한 재정, 회원의 확대와 그에 따른 역할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장포럼은 2020년까지 사단법인으로 독립된 조직을 갖추고 비정부기구(NGO)로 등록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 기반 위에 공익기구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사분야의 활동 영역과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직의 명칭도 목적에 맞게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국선장포럼」 개인 회원을 초빙합니다.

「한국선장포럼」 개인회원은 「한국해기사협회」 회원으로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상선에 근무하고, 해사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선박의 용도에 따라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선장 경력을 갖춘 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시게 됩니다.

상기 요건에 맞는 선장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장포럼의 회원이 되시려면 선장님의 소중한 경험을 해운사회에 환원시켜 해기직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본인의 재능을 기꺼이 베푸시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선장포럼」은 해사관련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법인회비로 운영되므로 개인 회원은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나, 먼저 한국해기사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한국선장포럼」의 개인회원 신청은 「한국선장포럼」 홈페이지(www.shipmaster.or.kr)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고, 포럼 사무국으로 전자신청을 하셔도 되며, 직접 포럼 사무국(한국해기사협회 내)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4882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12-14 (해기사회관 3층) 한국선장포럼 사무국
TEL: 051-715-5092~3, FAX: 051-463-5091 E-mail: captain@shipmaster.or.kr
홈페이지 : www.shipmaster.or.kr